



성장률이 2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U-헬스케어

환자의 대기시간이나 진료시간의 지연을 단축시키고 중복검사 등을 줄여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환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원격진료 등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U-헬스케어는 각종 의료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진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U-헬스케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규모가 2020년 6조 2,9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성장률이 2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U-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각국의 소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국민적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IT 기술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U-헬스케어'

2020년 6조 달러 시장규모 전망,
우리나라도 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진행

세계경제의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IT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U-헬스케어 사업은 각국이 추진하는 전략사업이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언제든지 검사와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김원학 기자(의학전문기자)



EU, 23개국 참여하는 AAL 프로젝트 시행

유럽연합(EU)은 e-Europe, 이른바 전자 유럽의 창설을 목표로 삼으면서 핵심 추진과제로 전자정부(e-Government), e-Business, e-Learning과 함께 e-Health를 선정해 왔다. EU는 IT와 서비스를 접목해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AL은 고령자에게 IT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건강관리, 응급시스템 등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2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7년간 3억 5천만 유로(약 6,650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 5년간 헬스IT 서비스에 100억 달러 투입

세계는 미국을 주목한다. U-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최대인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서 전자의무기록(EMR)에 208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헬스IT 서비스에 100억 달러(15조 원)를 투자하고 미국내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U-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텔레케어(Telehealth) U-헬스케어 전담조직인 OAT(Office for the Advancement of Telehealth) 및 범부처 활성화 협의체(국무부, 통상부, 국방부 등 11개 부처 참여)를 운영 중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만 69개 사업에 3년간 4억 1천만 달러(6,150억 원)를 투자한다. 미국의 U-헬스케어 시장은 지난 2006년 10억 달러에서 오는 2015년 33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고령화 사회에 특화된 IT정책 추진

일본은 고령인구 증가로 경제성장을 둔화, 사회 활력 하락, 내수시장 축소, 농촌 및 중소도시 경제 파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가정 의료, 간호, 돌봄 및 지원방안 추진, 노인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확산, 원격근무 활성화, 지역 연계를 통한 의료 지원 추진 등 고령화 사회에 특화된 IT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시스템 연결 테스트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시설의 선진화 등이다. 최근에는 단일병원에 기반을 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한 발 나아가 병원 커뮤니티 기반의 의료 서비스인 전자건강기록(EHR)을 추진하고 있다.

장비·시스템 회사는 물론 병원도 적극 추진

국내에서도 U-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부터 U-헬스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17개 신성장동력에 포함시키고, 각 부처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 총 300억 원 규모의 만성질환자 관리 시범사업인 스마트케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도 눈여겨볼만하다. 삼성은 의료 기기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오는 2020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케미칼을 비롯한 기업들도 U-헬스케어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가톨릭대병원 가톨릭U헬스사업단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헬스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성의료원은 환자들에게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수가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U-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사업이 크게 확산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원격진료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 활발히 노력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제약 등으로 시범 적용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소비자·기업체 등 각 주체들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확산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계·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㉞